

JEW'S FOR JESUS

AustralAsian Newsletter / 2014년 8월

facebook

twitter

PayPal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내 22살 딸 아이가 다리에서 번지점프를 한다고 얘기했을 때, 난 그 아이만큼 열광하진 않았다. 그렇지만 그녀는 성인이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저 불필요하게 걱정하지 않게끔, 끝나고 바로 전화해달라고 했다. 그녀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 그녀와 그의 친구가 고등학교 졸업을 기념하기 위해 스카이 다이빙을 할 때처럼.

번지점프는 주일날 오후 3:30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나는 그 날 어느 교회에서 오전 9시, 11시, 오후 5시 그리고 저녁 8시에 설교할 예정이었다. 나는 하루 종일 딸의 무모한 행동에 대해 생각했는데, 특히 오후 4시 즈음 아무런 전화가 없을 때 더 그랬고, 4시 30분 그리고 5시가 되어서 나의 미친듯한 전화와 문자에 답이 없을 때 더 심했다. 어쩌면 여러분은 내 불안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5시 15분 에 다시 설교를 해야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그 설교에 집중할 수 있었다. 7시 7분에 "나 살아있어요"라는 문자를 받았을 때 그 안도감을 생각해보라. 그 때까지

딸아이의 핸드폰은 통화권 밖이었다고 한다.

나는 내 자신이 광적으로 통제하려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나 또한, 우리가 주관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우리를 사로잡는, 그 불확실성과 무서움을 즐기지 않는다. 그렇지만 수년 동안 내가 발견한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주관하고 있다는 느낌은 그저 환상일 뿐이다. 나는 배낭여행을 하면서 이 교훈을 철저히 배웠다.

산에 갈 때 나는 하나님과 내 산악동료들 외에는 다른 이들에게서 완벽하게 벗어난다. 그럴 때 항상 엄습하는 생각이 있다, "내가 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날 때도 있다. 내가 산에 갔을 때 가장 친한 친구 Jhan Moskowitz가 뉴욕 지하철 선로에 떨어져 운명했다. 그렇게 그는 가버렸고 나는 소망을 빌거나 기도할 순간도 갖지 못했다...그 모든 일이 다 벌어진 후에야 나는 그의 갑작스런 죽음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이제 산에 가지 말아야 하나? 진짜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다. 그렇지만 내가 전화 한 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사건들을 주관하는 내 능력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가까이 있다는 것이, 사건을 주관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우리와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단련시켜야 하며, 그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는 그렇지 못함을 알아야 한다. 이는 단순한 사실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여러 상황들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와 믿음을 시험한다.

우리의 선교사 커플 중 하나가 다른 나라로 옮기려고 계획 중이었다. 장애물들이 나타났고, 그들의 이주 시기를 무한정 미뤄놓았다. 이 커플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봤지만, 너무 많은 것들이 그들의 통제권 밖이었다. 이 불확실성은 무서움과 좌절감을 낳았다. 나는 그들만큼이나, 펼쳐지는 환경에 대한 통제권이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갖고 계셨다.

나는 그 커플에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상기시켰다. 그들은 어디로 갈지, 어디에 도착할지 몰랐지만 떠났다. 구글 맵도 없던 때이다. 그들은 상황을 주관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였으며, 바로 그 분이 주권을 갖고 계셨다. 성경은 그가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라고 기록한다 (히브리서 11장 11절). 우리는 이것을 평소에 잘 얘기할 수 있지만, 이러한 문제들에 관하여,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지 않으면(또는 단련할 때까지), 계속해서 무서워하고 짜증내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과 그분의 약속들을 우리에게 계속 상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후에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통제권을



David Brickner
Executive Director,
San Francisco USA



우리는 보통 우리의 통제권이 없는 환경을 선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기쁜 자유와 하나님 안의 믿음을 나눌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다. 우리가 통제권이 없더라도 말이다. 그 선택은, 내 자신보다 그 분이 주관할 때 얼마나 더 좋은지를 기억하기만 하면 훨씬 쉽다.

그 분에게 넘겨드릴 수 있다. 그렇다면 그분의 약속들을 무엇이 있을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히브리서 13장 5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하리니”(이사야 43장 2절)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이사야 41장 9-1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태복음 28장 20절)

그리고 약속들은 계속해서 이어진다. 우리가 주관하고 있다고 느끼려는 자신의 욕망(간혹 필요라고 착각하는)을 포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귀한 약속들을 만드신 그분의 통치하심을 믿도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 안의 우리 믿음은 단지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우리를 돌보심에 대한 그분의 주권(통치나 주관)을 믿으면, 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신다! 어느날 우리는 용기백배하여 그분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자신을 본다. 믿음이 우리를 무모하게 만들거나,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통제권에 대한 환상을 놓도록, 우리 주먹을 펼 때 나타나는 일이다. 그러한 환상에서 자유해지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다. 그 환상들은 거짓 경고를 속삭이며, 하나님의 진정한 약속들을 들리지 않게 하기 때문이다. 그의 약속들을 듣고 신뢰하는 것은, 우리에게 담대함과 즐거움 안에서 살아가고 섬길 수 있도록 용기를 준다.

Jews for Jesus의 핵심 가치 중 하나는 바로 “용기 있는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어, 하나님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우리 인생과 환경에 대한 통제권을 꼭 쥐고 있으면 그렇게 하지 못한다. 나는 환경이 안 좋을 때 뿐만 아니라, 어디로 가는지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믿고 싶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싶으며, 그의 영광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싶다.

내 딸이 번지점프할 때 감수한 위험은, 내가 말한 위험-감수를 꼭 가리키지는 않는다. 그래도 내 핸드폰에 있는

딸아이의 사진은 내가 말하는 바를 그리고 있다: 등을 활짝 펴고, 팔을 공중에 뿌리며, 아름다운 강 위 150 피트 높이 있는 다리에서 뛰어내리는 것 - 숨가쁜 기쁨과 말릴 수 없는 신뢰의 그림이다. 이 사진은 정말 설득력이 있다.

우리는 보통 우리의 통제권이 없는 환경을 선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기쁜 자유와 하나님 안의 믿음을 나눌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다. 우리가 통제권이 없더라도 말이다. 그 선택은, 내 자신보다 그 분이 주관할 때 얼마나 더 좋은지를 기억하기만 하면 훨씬 쉽다.

나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우리 Jews for Jesus 스태프의 예에서 영감을 받은 바 있다. 그 나라에 퍼져있는 폭력과 불안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나서고, 더 드러내고, 더 노출되기 위해 더 노력하기로 결정했다. 키예프의 메이든 광장에 불안과 폭력이 폭발할 때,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곳에 있었다. 오데사가 불타고 있을 때, 자신들의 안전에 대한 염려 속에서도, 그들은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렸다. 나는 그들을 섬김으로 부르신 그분의 통치를 믿기로 한 그들의 결정이 자랑스럽다. 나는 하나님께서 것처럼 우리도 살기를 원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Jews for Jesus 안의 모든 이들이 그렇게 용기 있게 위험을 감수하기를 기도한다.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이기 위해 기도한다, 나의 Jews for Jesus 친구여.

주소 정보

GPO Box 925, Sydney 2001 AUSTRALIA
호주전화번호: +61.2.9388.0559
이메일: mail@jewsforjesus.org.au
홈페이지: jewsforjesus.org.au
Vol. 17 No.4

브라질,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미국 그리고 영국에 지부를 두고 있습니다.

후원계좌:
호주NAB BSB 082.067
계좌번호 46.072.8465
뉴질랜드BNZ.BSB 020.484
계좌번호 010.6273

싱가포르OCBC 예금주: Jews For Jesus
계좌번호581.252.897.001

PayPal, 신용카드그리고TT
로도후원을받습니다.

JEW'S FOR JESUS™

twitter

facebook

Donate now with...
PayPal

성령님의 추수



Laura Barron,
토론토, 캐나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그의 왕국으로 데려 오기 위해 당신에게 기대신다는 착각에 빠져본 적이 있는가? 나는 그런 적이 있다. 나는 내가 증인으로 부름받았으며, 다른 이들을 만지시기 위해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누군가의 인생에 내가 필요한데, 내가 그들을 양육할 수 없을 때,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걱정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나는 내가 바쁜 출장을 마치고 돌아와서, 정기적으로 양육하던 여러 명의 사람들을 다시 만났을 때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도 미처 몰랐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떠나 있을 때 행하신 일들로 나를 놀라게 하셨다.

엘리스*는 나와 요한복음을 같이 공부하고 있었다. 내가 어떤 교회에서 “유월절에서의 그리스도”라는 강의를 할 때 처음 만났다. 나와 동갑이고, 유대인이며, 예수님에 대해 배우는데 열려 있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약속된 메시아이며, 그녀의 죄값을 치루신 분이라는 것을 전적으로 확신하고 있지는 않았다. 엘리스는 가까운 기독교인 친구들이 있었고, 교회에 나가는 것을 즐기고, 성경 읽는 것을 좋아했지만, 동시에 유대인인 동시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믿기 힘들어했다. 우리가 같이 했던 시간들은 엘리스에게 복음이 얼마나 유대적이며, 그녀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를 깨닫는데 도움을 주었다. 나는 그녀를 떠나는 것을 싫어했지만, 유월절과 여름 전도 캠페인 사이의 기간은 몇 달 밖에 되지 않았다. 내가 돌아왔을 때, 엘리스는 그 해 여름 동안 그녀가 출석하고 있던 교회의 야유회를 갔다. 호수에서 배를 타고 있는데, 성도 중 한 명이 그녀에게 다시 복음을 전했고, 그녀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냐고 물었다. 엘리스는 그렇다고 대답했고 바로 그 호수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녀가 얘기할 때 나는 입이 떡 벌어질 수 밖에 없었다! 우리는 여전히 같이 성경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있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은 새로운 믿음 안에서 자라기를 강하게 갈망하고 있다!

나는 또 내가 만나고 있던 줄리*라는 여자에게 전화했다. 그녀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원 자라기 보다는 좋은 선생으로 여기고 있었

다. 그녀의 대부분의 공동체, 사회 관계 그리고 가족들은 유대인들이었으나, 학창시절부터 가깝게 지내온 기독교 친구가 있었다. 내가 전도 캠페인을 떠났을 때, 줄리는 그녀의 인생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 그러나 내가 돌아왔을 때, 그녀에게 새로운 소식이 있었다: 그녀는 예수님과 가까운 관계를 갖고 있었다. 우리가 접촉하지 못했던 그 수개월 동안 그녀는 예수님에게 그녀의 인생을 바쳤다. 사실, 그녀는 동네 교회로 들어가서, 목사에게 세례를 달라고 했던 것이다! 다시 한 번 나는 놀랐다 - 기쁘게 말이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다! 사라*는 나와 2년 동안 여러 번 접촉하였고, 예수님에게 인도되었지만, 구원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 그녀는 나와 성경을 읽었지만, 주님께 마음을 드릴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녀가 유방암 말기로 진단을 받은 것이다. 사라와 나는 자주 말하고 문자를 주고 받고, 치료를 받는 동안 그녀를 위해서 기도했다. 내가 여행 중일 때, 그녀는 근처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모임에 정기적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내가 이스라엘 전도 캠페인에서 돌아왔을 때, 그녀는 예수님에게 삶을 드리게 위해서 기도할 준비가 되어있었다! 사라는 사실 암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왜냐하면 암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녀를 이끌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녀의 인생에 내린 주님의 섭리에 너무나 기쁘다. 몇개월 후에 그녀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왕국을 만드는데 참여하는 것이 특권이라 생각하며, 내 삶으로 데려오는 사람들을 끝까지 섬기고 싶다. 그러나 이 추수는 전적으로 성령님의 일하심이며, 그는 종종 한 사람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일하신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다. 엘리스, 줄리, 그리고 사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주세요. 그들이 메시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그들의 삶을 살아가도록 - 그리고 추수밭에서 우리와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명

우선순위: 먼저 유대인에게로



Bob Mendelsohn
Regional Director - JFJ AustralAsia

문학의 거장들이 어느 저녁에 모여 이야기를 하였다. "무인도에 떨어져서 단 한 권의 책을 가질 수 있다면 어느 책을 선택하겠는가?"

영국인이 말했다. "솔직히, 셰익스피어 전집이겠지요."

미국인이 말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성경이요."

위대한 전기 작가 G.K. 체스터톤에게 물었더니 그는 대답했다. "단 한 권만? 그러면 토마스의 '배 만드는 법'."

우선순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것을 싫어하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축구를 보기 전에 집안 일을 끝내야 하고, 고등학교 가기 전에 1,2 학년을 마쳐야 합니다. 체스터톤은 우선순위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영적 영역에서도 진리입니다. 선행 이전에 믿음이 있어야 하고,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내 자신이 죽어야 합니다. 전도는 어떻게 하나요? 해야 할까요? 누구에게 먼저 가야 할까요? 동네, 세계적인 대도시, 가난한 자, 이미 믿는 성도...누구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우선순위가 먼저 유대인 이 먼저임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로마나 캔버라로 오시지 않고 이스라엘로 오셨습니다. 예수가 태어날 수 있었던 수많은 지역들 중에서, 그는 유대의 베들레헬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선택은 다른 옵션을 선택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께 마귀를 쫓아냄으로서 그녀의 딸을 치료해달라고 간청할 때, 예수님은 "자녀"(유대인들)가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마가복음 7:27)라고 말씀하시며 그가 "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마태복음 15:24)라고 하셨습니다. 그 뜻은 그가 이방인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그의 첫번째 오심이, 유대인들에게로 첫번째 오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그 "대사명"이, "회개가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누가복음 24:47)이 될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할 것을 생각했지만, 순서가 있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 유대/사마리아, 그리고 지구상의 땅 끝(거기에는 호주도 포함될 것입니다)입니다. 그의 삶과 가르침에서, 예수님은 물리적인 이스라엘을 우선순위로 삼았습니다.

사도바울은 이 면에서 예수님을 잘 따랐습니다. 로마서에서 그의 널리 알려진 선언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로마서 1:16) 세계 전도에 관한 바울의 가르침에서, 유대인들은 가장 일 순위 중심입니다. 로마서 11장에서, 마지막날에 어떤 현상들이 밀어닥칠지에 대한 결론에서 바울은 유대인 전도를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마찬가지로, 그가 주요도시를 여행할 때마다, 바울은 현지 유대인 회당에 들러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그가 이방인의 사도였음에도 말입니다(사도행전 9:20, 13:14, 17:1,2,17). 이것은 그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신에서 먼저를 떨군 후에도, 이고니오스로 사도들이 갔을 때도 일어납니다 - 바로 회당으로

갔습니다!(사도행전 13:51-14:1, 마태복음 10:14). 그의 삶과 가르침에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우선순위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명확하게 합시다: 우선순위가 전적인 배제를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성경이 유대인 전도를 당신의 우선순위, 기도, 그리고 재정에서 우선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후 다른 전도 이슈들이 옵니다 - "헬라인에게로다"(로마서 1:16), 그리고 "만민에게"(마가복음 16:15) 말입니다.

반대의 의견이 있을지 모릅니다. "뭐? 온 세계에 유대인들은 고작 1천 4백만명 밖에 없어요. 중국에 10억명이 있고 또 인도에 있는 10억명들이 모두 예수님에 대한 믿음 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 전도에 제가 힘써야 하나요?"

그들을 배제한다는 뜻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총만함이라도...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오"(로마서 11:11-15)

유대인에게로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 온 세계가 완전히 복음화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뉴욕, 시드니, 플로리다, 런던, 모든 곳에서 말입니다. 바울은 세계 전도가 유대인 전도에 기반한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달에, 금년에, 이것을 위하여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노아의 방주에서 배우는 열가지 교훈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은, 모두 노아의 방주에서 배울 수 있다.

1. 배를 놓치면 안 된다.
2. 모두들 다 같은 배를 타고 있음을 기억하자.
3. 미리 계획하라.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아직 비가 오지 않았다.
4. 건강을 관리하라. 60살이 되거나(아니면 600살이 되어서도) 누군가가 당신에게 정말 큰 일을 맡길 수 있다.
5.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귀기울이지 말라: 끝내야 하는 작업을 계속해서 일하라.
6. 높은 땅(선하고 올바른 것)에 너의 미래를 만들어라.
7. 안전을 위해서, 항상 누군가와 같이 여행하라.
8. 항상 스피드가 장점은 아니다. 말뿔이들은 치타들과 같이 배에 올라탔다.

9.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가끔 등등 떠다니는 것이 좋다.
10. 기억해라, 방주는 아마추어가 만들었고, 타이타닉은 프로들이 만들었다.
11. 어떤 폭풍이 몰려와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항상 무지개가 기다릴 것이다.

